

# 종이스틱·유리용기 등 친환경 혁신... 지속가능 산업 도약

## K뷰티 돋보기

### 〈중〉제조업체 전성기 맞이

한국콜마 연우 종이스틱 IDEA 금상  
 펌텍코리아 올해 최대 실적 전망  
 에스엠씨지 고품질 유리용기 생산

K뷰티가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자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 다양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K뷰티 전성기를 맞고 있다.

1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한국콜마의 자회사 연우는 국내 대표 화장품 용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141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24.2%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국내 매출은 약 769억원, 해외 수출은 643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4%, 45%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억원으로 전년 동기 13억원의 영업손실에서 흑자전환했다.

이러한 호실적에 대해 한국콜마는 연우의 주요 고객사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대형 뷰티 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인디브랜드 거대 확대도 매출 개선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연우 핵심 제품군은 펌프류, 튜브류, 견본류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펌프류 용기는 연우 대표 제품군으로, 연우는 국내 최초로 외부 공기 유입을 완벽 차단한 ‘에어리스 펌프’를 개발해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특히 연우는 최근 ‘2024 미국 IDEA



샘플&프로모션용 미니 사이즈 제품. /펌텍코리아



연우 ‘종이스틱’

/한국콜마

어워드’에서 ‘종이스틱’으로 금상을 받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종이스틱은 직관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용기다. 종이로 구성된 몸체를 한 올씩 벗겨서 사용해 내용물과 용기의 크기가 함께 줄어드는 직관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에코 앰플, 에코업앤다운, 듀싱글 콤팩트 등으로 수상 실적을 쌓았다.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고 있는 펌텍코리아는 올해 최대 실적으로 연간 매출 3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우선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해 1624억원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늘었다.

펌텍코리아는 앞서 지난 2023년에는 연결기준 매출은 2845억원을 기록해 전년 2366억원 대비 20.2%의 성장세를 보였다. 영업이익은 353억원으로 전년 265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펌텍코리아 제품군은 펌프부터, 튜브, 콤팩트, 스포이드까지 폭넓게 구성됐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펌프는 올해 상반기 1199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펌텍코리아에 따르면 인디 브랜드의 대량 발주, 메이저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들의 생산 외주, 신규 해외 고객사 수주 등이 매출 성장에 주효했다. 펌텍코리아는 생산 시설을 확보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펌텍코리아는 오는 2025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제4공장을 건설 중이다.

또 리필형, 높은 재활용 등급 등을 적용한 친환경 제품을 내놓아 국내외 화장품 산업의 환경 관련 규제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화장품 유리용기 제조사 개발 생산(ODM) 기업 에스엠씨지는 코스타다 우회상장을 추진하며 외형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에스엠씨지는 지난 11일 스펙(기업 인수목적회사)상장을 앞두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키움제7호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타다 상장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스엠씨지는 지난 2023년 매출액 약 374억원, 영업이익 약 27억원을 기록했다.

에스엠씨지는 지난 1998년 소망유리란 이름으로 설립된 이래 유리용기를 제조하는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 고품질 유리용기 제품 생산부터 후공정까지 제공한다.

에스엠씨지는 로레알, 존슨앤존슨 등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최근 떠오르는 국내 인디 브랜드들의 파트너사로서 다양한 맞춤형 몰드를 주문 설계하고 있는데, 특정 고객사에 의존하지 않는 다

변화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탈 탄소 흐름 속에서 플라스틱 대비 유리용기의 수요 확대는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스엠씨지는 ‘화장품 유리용기 전용’ 전기 용해로 시설을 국내 최대 규모로 갖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뷰티 업계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 용기, 원료, 소재 등은 뷰티 산업에서 필수 부자재이면서도 완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단순한 준비물이 아니라 안전성, 기능성, 심미성, 사용자 편의성 요충에는 친환경 요소까지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제조 기업들도 (고객사인) 뷰티 브랜드 정체성, 급변하는 소비자 유행, 시장의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한 전략을 찾으려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WeConnectScience

충전 한번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야  
**과학이다**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  
 화학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더 오래가는 배터리 소재로 전기차도 자유롭게 달리게 하자  
 과학으로 전기 모빌리티 시대를 이끌자

**LG화학은 과학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 최상목 “韓-필리핀 FTA 속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대외경제장관회의 기술유출 신고포상금제 도입 추진

정부가 첨단기술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기술유출 관련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체코 원전건설 및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영업비밀 유출 알선행위·재유출 처벌 규정 신설,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는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양해각서)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필리핀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외 경제여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